



일본인들의 김치 특허가 더 많은 이유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프랑스 를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품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인들의 포도주 제조는 옛 로마인들이 프랑스 지역을 정복할 때 전파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포도주의 원조격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오늘날 프랑스가 전세계에서 포도주 최고의 생산 및 판매국가로 자리잡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가 서구유럽에서 와인용 포도

재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프랑스는 각종 일반와인에서, 포도주를 증류시킨 꼬냑, 알마냑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도주 관련 상품에 대해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칠레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처럼 극성스럽지는 않다.

프랑스인들의 포도주 생산과 판매 기업은 거대하며 막대한 마케팅 즉 선전과 홍보 비용을 쏟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졸레 누보라고 보졸레 지역에서 햇 포도주가 나오면 국제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랑스는 포도주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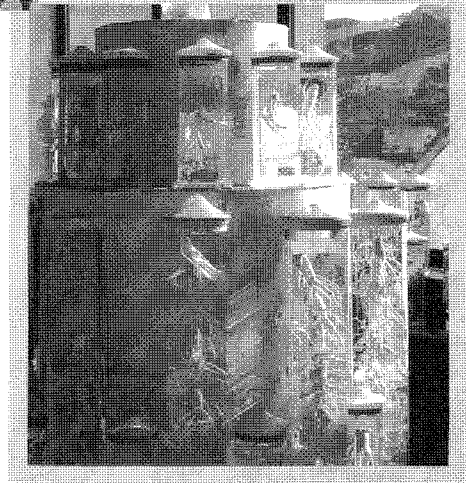


인 포도생산의 입지조건이 서구유럽에서 최고로 좋은데다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약차같이 선전하고 꼼꼼히 관리한 결과 오늘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이나 김치 처럼 전 세계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고유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을 프랑스의 포도주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브랜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김치의 경우 일본인들이 김치에 대한 세계 특허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풍부한 고유상품 관리와 마케팅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원조의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세계 최상이 되고 말듯이 우리의 고려인삼이나 김치도 제대로 관리, 발전시키지 못하면 원



조 브랜드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고려인삼 이야기를 통해 고려인삼의 역사와 재배, 제품의 종류, 그리고 세계화 전략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고려인삼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계속> ●